

영종 K-아레나(KARENA) 복합개발 프로젝트

글로벌 체류형 문화·항공 거점의 탄생

|카레나 프로젝트 세부 시설 및 개발 규모

시설 구분		세부 시설 명칭	주요 용도 및 특징	규모 및 면적
공연 시설		카레나 홀 (KARENA Hall)	K-팝 콘서트, 글로벌 이벤트, e스포츠, MICE	최대 70,000석 규모 (초대형 아레나)
숙박 시설		카레나 호텔 (KARENA Hall)	관광객 및 비즈니스객 체류공간 (레지던스 포함)	총 4,800실 (호텔 및 브랜드 서비스)
항공 업무		대한항공 업무 · R&D 시설	항공 산업기반 연구 및 업무 (T1-2BL 부지)	대지 3,630평 연면적25,000평
기타 복합		상업 · 문화시설	쇼핑, 식음료, 전시 및 관광 소비 시설	아레나 및 숙박시설 연계 동선 배치

관문에서 체류로, 영종의 기능적 패러다임 전환

공항 이용객이 스쳐 지나가는 구조를 극복하고, 공연, 항공 비즈니스,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당초 계획 대비 3.7배 확대된 숙박 인프라

기존 1300실로 계획되었던 호텔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대형 공연 및 이벤트 시, 발생하는 단기 대량 수요를 수용합니다.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의 자료 및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개발계획 및 사업계획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K-아레나 수요겨냥 ... 영종에 4800실 규모 숙박시설 추진

인천 영종에 4800실 규모 카레나(KARENA) 호텔 조성 계획
K-아레나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전략 제시



특별계획구역 3		
구분	한도 및 업무지역	
주요 도시	특별계획구역 3	
주요 활동	· 자동차공업단지	· 관공리
	· 자동차공업단지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 포함)	· 입암리
	· 관공리 일대	·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운송
	· 한양대학교 (Hanyang Univ.)	· 자동차산업시설을 운주리, 새마을, 화곡리에서
	· 화곡리 (Hwaguk-ri)	· 관공리 (Gungori, Gungori, Gungori, Gungori)
인접 활동	· 고대연구 및 역사시설 (Gugae Research and History Facility)	· 관공리 (Gungori, Gungori, Gungori, Gungori)
		·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운송
특별계획구역 4		
구분	한도 및 업무지역	
주요 도시	특별계획구역 4	
주요 활동	· 자동차공업단지	· 관공리 (Gungori, Gungori, Gungori, Gungori)
	· 자동차공업단지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 포함)	· 입암리
	· 관공리 일대	·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운주리, 새마을, 화곡리에서
	· 한양대학교 (Hanyang Univ.)	· 자동차산업시설을 운주리, 새마을, 화곡리에서
	· 화곡리 (Hwaguk-ri)	· 관공리 (Gungori, Gungori, Gungori, Gungori)
인접 활동	· 고대연구 및 역사시설 (Gugae Research and History Facility)	· 관공리 (Gungori, Gungori, Gungori, Gungori)
		·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운송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최대 7만명 규모의 초대형 'K-아레나'와 연계된 48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레나로 발생한 공연·이벤트 방문객을 영종에 오래 체류시키는 관광 인프라 사업이 한층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략)

변경안에는 7만석 규모 아레나 공연장과 함께, 이와 연계된 4800실 규모의 카레나(KARENA) 호텔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KARENA 호텔은 당초 1300실로 계획됐지만, 변경을 통해 규모가 3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중략)

외국인 투자자를 겨냥한 다양한 분양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세부적으로 부동산(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제도와 연계한 해외 투자자 대상 한 국가별 마케팅 방안이 담겼습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란 법무부에서 지정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해외자본 반입 여부와 투자 유지 상태, 결격 사유 등에 대한 관계 기관 심사도 함께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제안서에는 중국의 경우 디지털 마케팅과 고자산층 투자자 유입, 일본은 현지 부동산 네트워크와 투자 세미나 개최, 베트남은 현지 분양사 네트워크 및 방문 계약의 유도 등이 중심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같은 숙박시설 확대는 K-아레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형 공연, 글로벌 팬덤 행사, e스포츠, 마이스(MICE) 등의 대규모 행사가 열릴 경우, 단기 방문객을 수용할 숙박 인프라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방탄소년단(BTS)이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사흘간 연 월드 투어 공연에는 총 15만명의 관객이 몰렸고, 공연장 밖에도 약 3만5000명이 운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는 공연에 따른 경제 효과가 1억 달러(한화 1492억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대형 K-팝 공연이 단순 관람을 넘어 도시의 숙박·교통·식음료 소비를 함께 움직이는 이벤트라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 아레나와 같이 7만명 규모 공연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연 전후 숙박, 식음료, 쇼핑, 관광으로 이어지는 체류 동선이 함께 정교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 업무·R&D 추진...영종 항공 거점도시 본격화

영종에 대한항공 업무·R&D 시설 결합 복합개발 추진 계획
공항 배후도시 넘어 항공산업 복합 거점 도약 주목시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카레나(KARENA)' 프로젝트에는 KARENA 홀, KARENA 호텔은 물론, 항공산업 기반의 복합 도시 조성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영종이 단순한 공항 배후도시를 넘어 항공산업, 문화관광, 숙박, 거주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9일 토마토그룹에 따르면, KARENA 프로젝트에는 영종하늘도시 T1 및 CB1 특별계획구역 일대에 대한항공 업무·연구개발(R&D) 시설, KARENA 홀, KARENA 호텔, 레지던스, 상업·문화시설 등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개발 구상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구상은 기존 영종이 공항 이용객이 지나가는 관문 역할에 머무른 점을 극복하고, 공항 이용객과 공연 관람객, 항공산업 종사자, 장기 체류 외국인 수요를 지역 체류로 연결하는 체류형 도시 모델을 지향합니다.

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영종에 대한항공 업무·R&D 시설이 배치될 전망이다. 제안서상 대한항공 업무시설은 T1-2BL 부지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안서에는 국내외 항공 관련 기업의 투자 유입 가능성을 높이고, 영종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전반의 투자 유치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담겼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의 입주 확약서에 따르면 T1 구역에서는 대지 3630평, 연면적 2만5000평에 업무 및 연구시설의 용도로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임대 또는 매매 방식, 사용 기간, 금액 등 세부 조건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아울러 영종 내 항공산업 기반 조성은 별도의 공식 사업을 통해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산업입지심의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입주 사업 계획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계획에는 대한항공이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에 첨단 엔진·부품 정비 공장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항공정비(MRO)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은 KARENA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추진됩니다. 다만 같은 영종 권역에서 대한항공의 항공정비 및 항공산업 기능이 확대는 KARENA 프로젝트의 항공산업 기반 복합도시 구상과 맞물려 영종의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항공사 단독으로 움직이는 산업이 아니라 정비, 부품, 물류, 교육, 연구, 협력사 네트워크가 함께 작동하는 생태계형 산업입니다. 대한항공 업무·연구개발 시설 구상과 항공정비 클러스터가 같은 영종권에서 함께 추진 흐름을 보이면 영종은 항공산업 관련 기업과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게 됩니다. 특히 이 같은 흐름은 인천시가 앞서 2024년 5월 제시한 항공복합문화도시 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대한항공, 파나비토 등과 항공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KARENA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 영종은 K-팝 공연장이 들어서는 지역을 넘어, 항공산업, 문화관광, 숙박, 거주, 상업 기능이 맞물린 복합도시 모델로 거듭날 수 있다"며 "대한항공 업무·R&D 시설 구상과 영종 항공정비 클러스터 추진 흐름이 더해지면, 영종은 공항 배후도시를 넘어 항공산업 기반 비즈니스 거점으로 위상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